

	한국사	Ⅲ.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19차시 : 1910년대 일제의 통치와 경제수탈	학번	
	임종일 T		이름	

★시대구분

1910년대 : 무단통치

1920년대 : 문화통치 (=민족분열통치)

1930년대 : 민족말살통치

★1910년대 일본의 정책

-1910년 10월, (①) 설치

[총독] : 입법, 사법, 행정 및 군사권을 장악한 식민통치의 최고 권력자

총독 아래에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정무총감,

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,

자문기관으로 중추원 을 둠.

-지방행정조직은 13도를 두고 그 아래에 부,군,면체제로 정비

★무단통치

- (②) 시행

헌병이 일반 경찰의 업무까지 간여하고 담당

정식 법 절차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한국인에게 벌금이나 구류 처분

- 1912년, 조선태형령 - 태형부활

- 교사) 제복을 입고, 칼을 참

- 언론, 출판, 집회, 결사의 자유 빼앗음

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, 잡지 출간금지

- 교육) 보통교육, 실업교육을 중심으로 편성

(③) 를 보급하는 데 중점

★일제의 1910년대 경제정책 : 토지조사사업

-임시토지조사국 설치, 1912년 토지조사령 공포

→ 토지조사사업 실시

[목적]

명분) 지세를 공정히 하고 (④) 을 확립

실제) 토지소유권을 새로 확정하여 (⑤) 를 안정적 확보,

토지매매와 저당을 자유롭게해서 일본인이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하기위함

방법) 기한 내에 직접 신고

결과) 조선총독부의 지세수입증가,

미신고 토지나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는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됨

→이 토지를 (⑥) or 일본인 농업 이주민에게 넘겨줌

+기존 경작권 부정, 소유권만 인정됨

→ 지주의 권한 강화, 소작농 몰락

★다양한 수탈정책

(⑦))-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함.

-한국의 자본축적 차단

어업령 - 한국에서 일본인 어업활동을 지원

광업령 - 광산약탈을 목적으로

총독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인삼의 전매사업도 벌임.

일제강점기

: 1910. 08. 29. ~ 1945. 08. 15.

헌병 : MP